

국가채무와 부채는 다릅니다

담당부서: 회계결산과

담당자: 김선길 과장, 이남희 사무관

담당부서: 재정건전성과

담당자: 이지원 과장, 강도영 사무관



국가채무(D1) = 나라빚

사실은 이렇습니다



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
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
국가채무(D1)는 **846.9조** 원입니다.

지난해 국가채무(D1)는
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**4차례 추경**(67조 원) 등
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**국고채 발행**,
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**국민주택채권 발행** 등으로 인해
123.7조 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
국가재무제표 상 부채

사실은 이렇습니다

국가재무제표 상 부채 1,985.3조 원에서 국가·지자체가 상환의무를 갖는 **확정부채**는 **717.6조 원**(36.1%)입니다.

< 2020회계연도 재무제표상 부채 증감 요인 >

(단위 : 조 원)

	'19년(A)	'20년(B)	증감(B-A)
부채 총계(1+2)	1,743.7	1,985.3	241.6
1. 확정부채 : 국공채 등	606.0	<u>717.6</u>	111.6
2. 비확정부채	1,137.7	<u>1,267.7</u>	130.0
- 연금충당부채	944.2	1,044.7	100.5
- 기타 충당부채	56.2	58.0	1.8
- 기타 발생주의 부채	137.3	165.0	27.7

비확정부채 1,267.7조 원은 공무원연금 등 **연금충당부채**(1,044.7조 원)가 **대부분**입니다.

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**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**하므로 나라가 **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**이합니다.

* 실제 연금지출은 **재직자**(공무원, 군인)가 **납부**하는 기여금 등 **연금수입**으로 우선 **충당**

국가재무제표 상 자산

사실은 이렇습니다

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은 (작년 결산 기준)
국가부채보다 504.9조원 많은 2,490.2조 원이며,
전년대비 190.8조 원 증가하였습니다.

국채발행 등을 통해 지출되는 세출사업에 결과물은
상당부분이 국가자산 확대에 귀결됩니다

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
융자사업 확대 등으로
유동·투자자산
147.5조 원 증가



국방예산 증가에 따른
무기체계·전비품 등
일반유형자산
29.1조 원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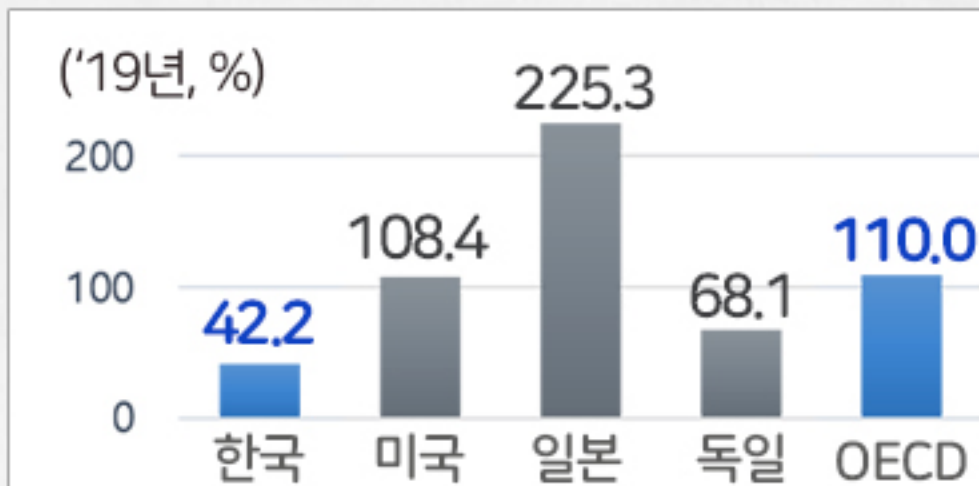
SOC분야
재정투자 확대에
사회기반시설이
12.5조 원 증가

재무제표 상 순자산(자산-부채)은 '20년 504.9조 원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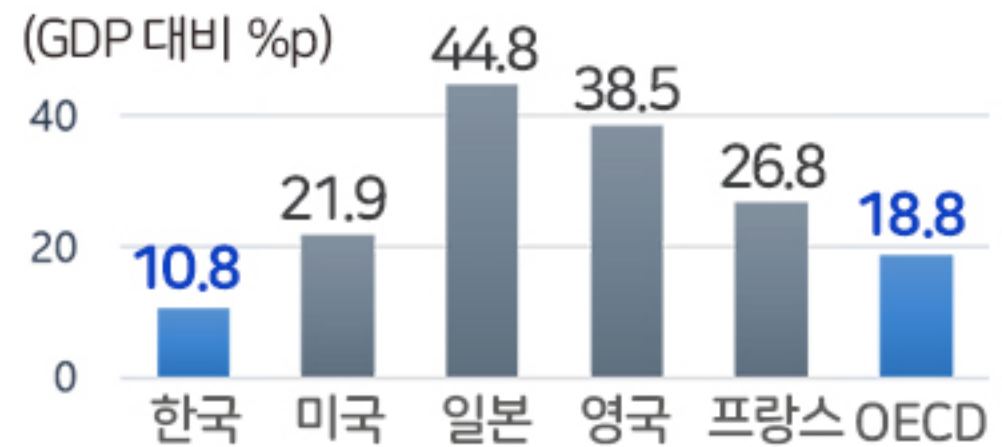
재정건전성

사실은 이렇습니다

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 하더라도
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
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.



일반정부부채



'09년 대비 '19년 일반정부부채 증가

지난해 가성비 높은 정책대응으로 OECD 국가 중
정부부채 증가폭(%p) 이 낮은 국가입니다.(IMF전망 기준)

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,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
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.